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된 열정</b> <b>하나된 대한민국</b> 
	배포일시	2017. 11. 17(목)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당자	• 과장 이정기, 사무관 허원석 • ☎ (044) 201-3574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‘SOC 안전관리본부’ 만든다더니... 1년 다 돼가도록 ‘추진단’ 만 설치 보도 관련

- 국토교통부는 경주지진 이후 지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 SOC의 체계적 안전·유지관리를 위해 2017년 1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체 인력 조정을 통해 “국가내진센터 설립 추진단”과 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”를 신설(9명)\*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,
  - \* 조직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“국가 SOC 유지관리본부(가칭)” → “국가 내진센터”와 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센터”로 분리
  - 2018년에는 정원 12명을 추가 보강하여 약 20여명이 전담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였으며, 현재 해당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
  - 이를 통해,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시설물 내진성능 실태를 관리하고 내진보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특수교량에 설치된 계측센서의 정보를 활용해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신호를 알리기 위한 “시설물 상시 안전망”은 연말까지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 (11.17, 서울경제) >

- ◆ ‘SOC 안전관리본부’만든다더니... 1년 다 돼가도록 ‘추진단’만 설치
  - 경주지진 이후 예산 미배정 등의 이유로 임시조직만 운영
  - 올 하반기 구축한다고 했던 시설물안전망도 아직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



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
건설안전과 허원석 사무관(☎ 044-201-35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